

‘도시의 힘’은 이동 중

대전에 진입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중 하나의 이름이 최근 ‘엑스포’에서 ‘대덕밸리’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난 8월 대전시는 ‘대덕밸리 종합육성계획’을 발표하였다. 대전의 관심사는 채 10년도 되지 않아 엑스포에서 ‘벤처’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좀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열망이 대전시청으로부터 일고 있다.

1993년 개최된 ‘대전엑스포’는 국제행사로 보기에는 민망한 성과를 내었지만 대전이라는 도시를 획기적으로 개발시킨 원동력이었음에는 분명하다. 이제 그 거대한 힘, 거칠게 도시를 파헤치고 고충화시킨 그 가공할 힘을 대덕밸리가 이어받고 있는 셈이다. 그 힘은 또다시 이 도시를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

한필원(한남대 건축공학과)

비전 : 대덕밸리

최근 대전시는 대덕밸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대전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것을 대덕밸리의 핵심축으로 하고 기존의 관련 공간과 시설들을 연계함으로써 대덕밸리의 공간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대전과학산업단지의 건설은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된 (주)대덕테크노밸리를 통해 추진하려 한다. 유성구 관평동, 용산동, 송강동 일대의 128만평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5단계로 나누어 벤처산업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용지 등으로 구성되는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연구·생산·교육·레저의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첨단복합산업단지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단지를 구성하는 개념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흥미있는 하나는 대지를 5천~1만평 단위로 분양하여 업종별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입주하는 업체들에는 지원금의 혜택도 주어 이러한 단위 단지들의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발방식의 선례로서 대덕연구단지 내에 5개의 벤처협동화단지가 건설되고 있다. 관아 주도하는 개발 프로젝트가 전에 없이 체계적으로 접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벤처협동화단지로 실현된 한 예가 ‘대덕 벤처협동화단지’이다. 유성구 문지동에 소재한 이 단지는 1998년에 조성되었는데, 4,000평의 부지에 6개의 전기전자 관련 업체를 수용하고 있다. 이 단지를 보면 업종은 통일되어 있으나 극단적으로 다른 조형의 건물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단지가 통일감있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주차장까지도 개별건물 단위로 조성되는 등 단지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만한 공간이나 시설이 없는 것이 아쉽다. 과연 시너지 효과란 무엇인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 대전과학산업단지 조감도

생산·주거·교육·문화·레저 등이 어우러지는 벤처단지로 2001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5단계로 조성될 계획이다.

▶ 대덕 벤처협동화단지
임종별 클러스터를 이룬 개발의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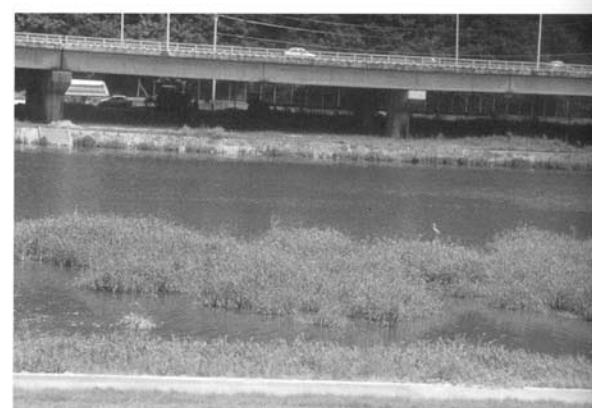


위기 : 하천생태계

도시에서 일어나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충돌은 대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대전에서는 오늘날 벤처기업들이 일정지역에 집착하여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이른바 ‘벤처생태계’가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전을 근대도시로서 형성한 힘이었고 현재까지도 매력있게 만들어주는 하천들의 ‘자연 생태계’에 관한 문제에는 그다지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고 있다.

대전의 영역은 동으로 계죽산(높이 424m), 서로 구봉산(높이 204m), 남으로 보문산(높이 458m)과 식장산(높이 598m)으로 둘러싸인 분지형으로 규정된다. 그리고 도시영역 내부의 공간구성은 하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대전천, 유등천, 갑천은 도시의 3대 하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의 흐름은 대동천 → 대전천 → 유등천 → 갑천으로 이어져 금강에 연결된다. 대전은 이 세 하천과 연계되는 20 여개의 소하천 지류로 조직된다. 대전은 구한말부터 근대적 도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대동천을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일제시대에는 대전천 주변으로 도시가 조성되게 되었다. 이같이 근대도시 대전을 형성한 근원적 힘은 하천이었다.

과거 천변공간은 집회공간으로 사용되는 등 도시활동의 한 무대이었다. 오늘날도 갑천변에서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 또는 다른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사색에 잠겨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고기를 구어 먹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중대백로들이 삼삼오오 모여 먹이를 잡는 등 그들 나름의 활동을 한다. 하천에는 수초가 우거지고 높이 형성되는 등 생태적으로 양호한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있다. 대도시 대전을 매력있게 해주는 장면이다. 그러나, 대전의 하천에서 사람과 다른 생물들을 위한 구역이 소리없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도시의 자연생태계가 처한 위기이다. 현재는 하천 변의 많은 부분을 따라 하상도로가 이어져 있고, 곳곳에 대형 집단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다. 하천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소들이다. 그것들로 인해 하천이 도시의 개방된 공적 공간으로서 역할을 점차 상실하고 자동차 위주의 통과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전시는 신탄진 현도교에서 서구 기수원교에 이르는 28km 구간의 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사상 최초로 외국 기업들과 거액(약 3000억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한다. 이러한 공사의 결과는 바로 하천의 친수기능 상실일 것이다. 그에 따라 하천은 도시를 나누는 경계요소로 작용할 뿐 더 이상 도시생활의 장소로서 작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 갑천의 중대백로들

하수종합처리장 앞의 갑천 모습. 현재 국가하천 다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천연도로가 건설된 후에도 이런 모습을 유지해지는 듯할 것이다

▶ 천변 고속화도로 공사현장





대전 구도심 건축지도

'아시아건축연구실' (<http://ata.harram.ac.kr>)에서는 대전 구도심의 건축지도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구도심의 주택

구도심에 여전히 주택들이 남아있으나 그 기능은 주거 이외의 기능으로 변화되어 구도심에서 거주기능이 급속히 억제되고 있다.



인정국의원

대전의 구도심은 대전천을 가로지르는 '대전역 - 충남도청'의 동서축, 곧 길이 1.1km, 폭 30m의 중앙로를 중심으로 정방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조성되었다. 1989년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전시는 행정구역 537.25㎢(현재는 539.73㎢), 2000년 말 현재 인구 139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20세기 초 근대도시로서 도시의 공간적 틀이 갖추어진 이후 거대도시로 자리잡은 19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대전은 도시면적의 0.75%에 불과한 도심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도시였다. 구도심 주변의 도로체계 또한 도심지형적인 방사상 패턴으로 구성되어 강한 도심의존성을 보여준다. 구도심 주변에 5거리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라고 해석된다. 요컨대, 그 동안 구도심은 도시 전체의 핵 역할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1988년부터 시작된 둔산지구의 개발로 그간 도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온 대전의 구도심은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 구도심에 자리잡았던 업무기능 중 많은 부분이 이미 둔산지구로 이전되었으며, 거주기능도 상당부분 이탈된 상태이다. 대전 구도심의 쇠퇴는 도심에서 거주기능이 업무기능에 밀려나는 일반적인 대도시의 공동화 현상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도심을 대체하는 신도심인 둔산이 단기간에 형성됨에 따라서 구도심의 업무기능과 거주기능이 동반하여 이탈하는 것이 대전 구도심 문제의 특징이다. 구도심에서 주택의 재고는 여전히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그 기능이 주거 이외의 기능으로 변화됨으로써 거주기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구도심 내에서 주요 시설들이 이동하고 재편되면서 그 파장이 도시를 꿈틀거리게 하고 있다. 예로, 시청이 둔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 시청 자리에는 중구청이 이전해갈 예정이며, 현 중구청 자리는 시에서 건설업체에 대물 변제함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앞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도심은 태생적으로 '근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대전이 본격적으로 도시의 틀을 갖추어나가는 1930년대에서 196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건축된 근대건축물들이 그곳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구도심의 블록들은 대개 5층 내외의 건물들로 구성됨으로써 안정감 있는 스카이라인과 인간적인 척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점차 퇴색해가고 있다.

이러한 불길한 한 사례로, '연정국악원' 건물을 보자. 설계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이 건물은 1958년 건축되고 1967년 증축되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329㎡의 규모의 이 건물은 기단, 오더, 코니스 등 서양 고전건축의 어휘를 잘 구사한 대형적인 파사드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단아하게 설계된 건물이다. 현재 시립 연정국악원의 연습 공간, 전시공간, 도서관,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이 건물은 본래 이승만 전 대통령의 탄신 8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우남도서관'이었다. 우남은 바로 이승만의 호이다. 이 건물은 그 후 도립이던 충남대학교의 국립대학 승격을 위하여 그 부속도서관으로 사용된 적도 있다. 그리고 한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방치되다가 1961년 1월 20일부터 17년간 KBS 대전 방송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어서 중구청 별관으로 활용되다가 198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연정국악원이 입주해있다. 현재 이 건물은 대전 월드컵 경기장의 공사 대금으로 대물 변제되어 건설업체 측에 매각된 상태이다. 시 소유의 780평 대지를 월드컵 경기장을 위해 사업에 넘긴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건물이 보전되어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겠다.

구도심에서 주목할 만한 하나의 현상은 용도에 따른 가로의 분화이다. 동일 용도의 건물이 가로를 따라 집적됨으로써 도시공간이 용도에 따라 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미 한복거리, 한약거리 등 특화된 용도에 의해 가로성격이 규정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이에 더하여 시에서는 도시가로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으능정이 거리, 문화예술의 거리, 청소년 문화의 거리 등을 지정하였다. 그러한 가로들은 차량교통을 일정하게 통제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여들고 결과적으로 구도심은 부분적으로 나마 활기를 유지하고 있다. 관 주도의 가로조성 계획이 실현되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남대 '아시아건축연구실'에서는 구도심 전 지역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건물과 외부공간을 형태-배경(figure-ground) 방식으로 표시한 건축지도를 작성함으로써 구도심의 도시건축적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이 건축지도에는 건축물의 구조방식과 현황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은 구도심 지역의 도시·건축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변모해가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벤트

건축디자인캠프



2001 건축디자인캠프 포스터

근래 많은 도시들에서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건축디자인 캠프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캠프들의 원조는 대전의 건축디자인 캠프이다. 이 건축디자인 캠프는 '(사) 도시·건축연구원' 산하의 '설계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도시·건축연구원은 1994년 학회, 가협회, 사회협회 등 이른바 삼 단체를 이루는 건축계의 통합적 조직으로서 출범하여 그간 여러 가지 지역건축의 현안에 관한 심포지엄과 연

구용역사업 그리고 출판을 지속적으로 수행 하여왔다.

건축디자인 캠프는 일찍이 1989년 제 1차 캠프를 시작으로 매년 거르지 않고 이어져서 올해는 제 13차를 맞았으며 올해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목원대학교에서 열렸다.

캠프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대전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10개 대학의 건축과 3, 4 학년 학생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팀들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된다. 지역의 젊은 건축사들이 투터를, 그리고 젊은 교수들이 크리틱을 맡아 이끈다. 캠프기간 중에는 캠프의 주제와 관련된 초청강의도 열린다. 따라서 캠프는 교육의 장이 뿐 아니라 건축계가 교류하는 기회이기도 한다. 8차 캠프까지는 소규모 설계프로젝트를 다루었으며, 9차에서 11차 까지는 주로 외국의 소규모 건물들을 건축적으로 분석하는 '건축읽기'를 진행하였다.

이어 작년 12차에는 주제를 '우리시대의 한 옥'이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올해는 '대전천의 구조적 연결'이라는 주제로, 구조를 바탕으로 건축디자인을 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같이 디자인캠프의 주제는 지역의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한 결과를 반영해왔다고 할 수 있다.

제 1회 태양광발전을 적용한 환경디자인 공모전



제 1회 태양광발전을 적용한 환경디자인 공모전 최우수작

제 12회 태양광 발전 국제학술회의 (PVSEC-12)의 부대행사 중 하나로 '태양광발전과 환경디자인의 조화'라는 주제를 내건 환경디자인 공모전이 개최되었다. 제 12회 태양광 발전 국제학술회의 조직 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이 공모전은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을 교육·홍보·보급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원과 산업자원부, 그리고 한국태양에너지학회가 후원한 이 공모전은 최종(건강대 건축공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대전 및 인근 지역의 교수와 연구원들로 구성된 9인의 운영위원회에 의해 추진

되었다. 129편의 응모작이 접수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이경희(연세대 건축공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5인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였다. 결과로 전태숙, 류진호 팀(충남대 건축공학과)의 작품, 'Spirited Space'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본 공모전은 지역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기획하고 추진하여 성과를 얻은 이번트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공모전은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과 에너지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류하고 협동 작업하는 계기가 되었다.

커뮤니케이션 & 출판



최근 대전에서 출간된 건축관련 간행물을

회 대전건축사 회원전이 개최되었다. 25작품이 출품됨으로써 비록 전 회에 비하여 출품작이 줄었고 작품의 내용도 공모전 출품작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이 같은 전시회는 건축사들이 교류하고 서로 자극을 받는 장이 되고 있다.

지역 건축학자들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로는 대한건축학회 대전충남지회 논문집이다. 이 논문집은 연 1회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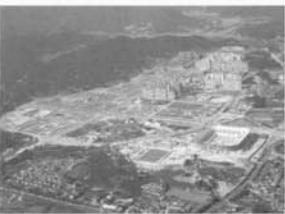
행되고 있는데, 주로 지역 건축연구자들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그밖의 매체로 매년 건축디자인 캠프가 종료된 후 발간되는 보고서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의 캠프를 점검하고 좀더 발전적인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건축대전 작품집'도 발간되어 왔으나, 1998년부터는 IMF의 영향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정간된 상태이다. 이밖에 '대전광역시 광고대상 작품전 보고서' 등이 출간되고 있어서 건축인들 사이에 다양한 교류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대전의 건축' 표지

근래 대전의 도시와 건축을 소개하는 책들이 출간되기 시작하였다. 1999년 말에 출간된 '대전의 건축'은 손에 잡히는 크기만큼이나 찾고 읽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편집된 것이 특징이다. 설계실무도 병행하며 충남대에서 오랫동안 건축 교육을 하고 작년에 정년퇴임을 한 박만식 교수가 고건축 부분을, CNU건축의 소장으로 다년간 건축실무를 하면서 건축을 문화로 자리매김하려는 지역의 분위기를 선도한 유병우 소장이 근·현대 건축 부분을 집필하였다.

작년 4월에 (사)도시·건축연구원에서 발간한 '대전가곡(大田街曲) 33선'은 김억중(한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를 편집 디렉터로 고성희 씨 등 지역의 젊은 건축가들이 대전의 가로들을 애정어린 시각으로 풀어낸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여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대전 또한 전반적으로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하나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직하는 가로를 좀더 천천히 바라보면 아직 가로들은 그 도시의 독특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다.



노은지구 전경. 2000년 10월의 항공사진

대전이 갖는 커다란 장점은 그것이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균형화된 수도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거주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대전에서 주거의 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닌 질적 문제이다. 2000년 말 현재 대전의 주택보급률은 96.5%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사설상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노은지구이다. 노은지구는 대전 구도심의 서북부에 자리잡고 있다.

노은 1지구는 1995년 11월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일부 아파트에는 입주가 되고 있는 신개발지이다. 사업면적은 59만 2천평, 계획인구는 33,780명(8,445세대)이다. 노은 1지구는 현재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가는 둔산에 비해 두 가지 정도의 차이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는 자연환경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것이다. 둔산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리아 군데군데 만들 어 놓은 공원이 전부의 뿐 주변의 광역녹지로는 일부러 차를 몰고 나가야 한다. 그러나, 노은 1지구는 주거지 가까이에 풍부한 녹지를 가지고 있다. 둘째는 단독주택의 거주환경이 우월하다는 점이다. 둔산에서는 단독주택용지가 대부분 주상복합용도로 개발되어 어느 정도의 주거환경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은 1지구에서는 짐포건축이 불가능하고 순수 단독주택만 건축이 가능한 전용 단독주택용지는 421필지 조성하여 쾌적하면서 도심에 근접한 단독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노은지구 중심축

있다. 전용 단독주택용지의 총 면적은 100,946.9m²로 필지당 면적은 약 73평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전용주택 용지들에 건축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지역경제의 침체 때문인지, 노은지구의 전형이 될만한 주택을 선보이는 것이 건축주, 건축가 모두에게 부담스러워서인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일반시민들 사이에서도 노은 1지구는 둔산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대안으로, 환경성을 중시한 단지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도심에서 둔산으로 이주해온 도시의 중산층들은 다시 노은으로 이동 중이다.

공룡과 게릴라

대전 건축사회에 등록된 회원수는 2000년 11월말 현재 275명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등록이 자율화됨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는 건축사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도시들에서도 마찬가지겠으나, 대전에서도 소수의 공룡 같은 대형 건축사사무소들과 다수의 게릴라 같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이 도시건축을 만들어가고 있다.

신화 엔지니어링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신화'는 직원 303명으로 이루어진 대전 최대의 건축사사무소이다. 그러나,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무소라서 그런지, 아니면 설계프로젝트보다는 김리에 치중하는 회사라서 그런지 전국적인 지명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1999년 대전시 건축상(은상)을 수상한 한국천문연구원과 최근 개장

한빛건축



변 한의원

오덕세 소장을 포함하여 5인의 설계팀으로 구성된 사무소이다. 오 소장은 지난 10년 동안 대전에 소규모의 아기자기한 건물들을 주로 설계하여왔다. 그는 대전에서 건축주들이 알아서 찾아와 설계를 맡겨주는 몇 안 되는 건축가이다. 오 소장은 '대지가 원하는 설계'를 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한다.

다. 그러나, 그의 성공에 대지를 중시하는 그의 건축철학이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그가 대지가 갖는 도시적 매력을 그다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가 건축주들에게 인정받는 비결은 건축주의 의도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살리는 설계를 잘 해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부처리에서 색채, 그리고 간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직접 챙기며 완벽한 마무리를 중시하는 그의 징인정신이 그를 수주 걱정 안하고 설계비도 제대로 받는 건축사로 만든 큰 이유라고 하겠다. 그는 소수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현장 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소규모 사무소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활동하고 있다. 오 소장은 전속 시공팀과 짹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시공까지 관리하고 있다. 시공자 논리에 이끌려 천편일률적인 모습의 소규모 건물들을 만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는 매우 바람직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동구 홍도동에 변 한의원 건물이 오 소장의 설계로 완공되었는데, 그에게서 완공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 소장은 설계에서 준공까지를 직접 철저히 챙기기 때문이다. 변 한의원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지상 2층, 연면적 351.6m²의 건물이다. 내부를 보면, 이층 부분의 복도가 아래층으로 열리고 간접체광되는 천창이 설치되어 퍽 재미있는 구성과 은은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오 소장은 이미 '해바리기가 있는 정물'로 1996년 대전시 건축상 금상을, '솔지원'으로 2000년 대전시 건축상 동상을, '홍제의원'으로 2000년 대덕구 건축상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렇게 오 소장의 작품들은 대부분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비슷한 패턴으로 10년간 일했으면 이제 새로운 발전적 시도를 할 때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오 소장이 자신의 틀을 넘어서는 더욱 깊이있는 건축을 하기를 기대한다.

한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설계를 담당하는 등 그간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주로 대전, 충남 지역에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노은지구 33,447평의 너른 대지에 건립되었다. 총 13,619평의 연면적을 갖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10개 동의 건물들이 들어선 대규모 시설이다. 1996년 7월 설계에 착수하여 올해 4월에 준공되었으나 사업기간만도 5년 가까이 걸렸다. 녹색개념의 알루미늄 복합파널로 청과의 신선함을 상징하는 듯한 이 도매시장은 하루 1천여 톤의 농산물을 처리하는 중부권 최대의 농산물 집하센터이다. 이 시설의 장점은 대단위 부지와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첨단시설을 구비하였다는 점이다.

'신화'는 현재 김리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설계프로젝트는 주로 관에서 발주되는 설계입찰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커다란 덕지의 사무소가 주로 김리로 부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IMF 이후 설계물량이 급감하고 설계비까지 급감한 현실에서 대규모 사무소가 취할 수밖에 없는 생존전략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김리 또한 물량이 점차 감소하여 이 공룡이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는 설계 분야에도 힘을 쏟아 체육, 교육·문화, 주거 방면으로 전문화하고 현상설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는 모두 전국적 또는 국제적 경쟁을 통하여 설계자가 결정될 것이므로 전문화를 통하여 특정 부문의 설계를 공략하려는 '신화'의 계획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제 지역 최대라는 크기만으로는 되지 않는 시대임을 '신화' 혹은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공룡은 지역의 건축기술과 건축문화 발전에 노력한 공로로 2000년 대한건축학회 대전충남지회가 수여하는 기술상을 수상하였다.



둔산

개발이 원료되어가는 둔산 신시가지. 그 획일성에 대한 비판은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그것은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동인이 되고 있다.

대전의 도시·건축을 말할 때, 대전시장에서부터 초등학교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둔산이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르다. 누구는 남향의 15층 건물만으로 된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누구는 신도시의 중심부를 점령해버린 대형 할인점의 아름답지 않은 물골에서, 누구는 불법으로 누더리를 만들어 입대하는 단독주택용지의 건물들에서, 누구는 이 신도시를 마음놓고 걷기가 힘들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그 이유야 어쨌든 이 실패에 대한 인식은 대전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 둔산의 교훈으로부터 관은 도시건축 만들기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일반 시민들은 좀더 나은 주거환경을 꿈꾸게 되었다. 육로 또는 철도로 서울과 두 시간이면 연결되는 곳에 자리한 대전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독립적 성격을 갖기가 어려웠다. 그렇다고 도시공간까지 온통 서울을 짙은 것은 아니다. 대전의 구도심을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 그래서 일까, 관에서는 대전에 좀더 눈에 띄는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대전의 지방정부도, 지방자치 시대에 눈에 띄는 성과가 바로 도시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면, 대전의 도시·건축적 전통 또는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대답이 찾아지고 있지 않다.

일단 대전이 역사도시로서 자기 모습을 찾아나가려면, 오늘날 그 침체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구도심의 도시공간, 그리고 거기에 힘겹게 서있는 근대건물을 잘 보전해나가는 것이 중요 할 것 같다. 대전의 구도심은 정체가 불분명한 둔산과 달리 대전 다운 모습을 간직한 도시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도심의 장래가 걱정되는 것은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제시되고 있는 방법들이 지극히 일반론적이기 때문이다. 구도심을 살리겠다고 무리한 개발을 추진한다면 도시의 고유한 공간조직이 와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결여된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다. 필자는 구도심 발전의 방향을 업무기능의 회복이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축에 두어서는 안되며, 단독 또는 저층의 주거를 바탕으로 특화된 산업·상업, 문화, 이벤트, 오락 기능 등 '대도시권 시민생활의 중심'을 형성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도심의 개발도 고충화된 대규모 건물이 아닌 저층고밀의 개발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럼으로써 대전 구도심을 지역성과 정체성을 가진 도시공간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최근 대전시는 '첨단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대전시에 '최첨단'이라는 이미지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1973년 12월 '대덕 연구단지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오늘날 대전이, 송시열을 위시한 조선시대 중기의 화려한

인물들의 본거지였던 점을 부각시키는 대신에 '첨단과학기술도시'라는 이미지를 내 건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보인다. 지금 관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대전의 앞날을 여는 힘이 '대덕밸리'에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대전은 엑스포의 도시에서 벤처밸리의 도시로 털바꿈하려 한다. 경제적인 정책에서 시작된 이러한 노력을 도시·건축 분야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 변화는 머지않아 기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변화의 중심은 대전 엑스포 국제전시구역의 재개발과 대전과학산업단지의 조성이다. 대전을 긍속히 개발시킨 엑스포는 도시에 대전 엑스포 부지라는 애율단지를 남겼다. 엑스포가 끝나는 날, 8만 2천 평에 달하는 지구를 어떻게 새롭게 기능하는 도시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대전시가 떠안게 된 것이다. 현재 이 곳에 대전 MBC 사옥 건물이 공사 중이며 컨벤션센터 등이 입지할 예정이다. 이 부지에 대해서 1995년에 이미 도시설계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현재 다시 지구단위 계획을 보완하는 등 개발을 준비 중이다.

대덕밸리는 현재 대전 사회가 갖고 있는 중심적인 비전이다. 그러나, 대덕밸리에 관련된 개발 계획들이 지역의 건축계에 별다른 파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전의 건축지도를 바꾸어 놓을 프로젝트라면 지역 건축가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전의 건축가들은 발표되는 정책과 계획을 그냥 듣고 있을 뿐이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는 대전의 경제정책 입안자들과 건축 전문가들이 좀더 긴밀히 협력하고 공생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에 따른 산발적인 건축행위로는 도시공간을 일정한 방향으로 조성해 나가기 어렵다. 책임감있게 도시·건축을 만들어나가려면 건축사 개개인보다는 건축사들의 조직에서 공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개개의 프로젝트들을 조정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곧, 벤처관련 업체들과 대전시의 건축사 집단이 만나서 협력을 할 때, 일련의 개발을 도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만남의 가교 역할은 두 집단 모두와 연계되는 대전시가 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는 업체들과 건축사 집단을 연결함으로써 그들 모두에 도움이 되고 도시공간까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 글을 위해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대전에서도 건축은 위기인 것이다. 그 위기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또는 건축계의 노력만으로 돌파되기에는 너무도 구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대전에서는 '노은지구'가 건설되고 있고, '대덕밸리'가 구상되고 있다. 나름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도 생각된다. 오늘 대전 건축계가 안고 있는 핵심적 과제는 지역의 경제 정책과 부합되는 건축적 해법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엑스포에서 대덕밸리로 넘겨진 개발의 '힘'을 건축계 내부로 끌고 들어와, 그것을 섬세하고 인간적인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동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자·료·협·조

- 글 : 한필원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자료 조사 : 한남대학교 아시아건축연구실
- 자료 협조 : 대전광역시청(건축과, 경제과학국 정인영 정책연구관), 대전광역시 중구청(남정일 도시국장), 대전광역시 건축사회(김공렬 회장), 도시·건축연구원 설계학교(유정훈 교장, 윤병구 소장), CNU 건축사사무소(유병우 소장), 신화엔지ニア링 건축사사무소(최재인 본부장), 한빛 건축사사무소(오덕세 소장), 예당 건축사사무소(이철주 소장), 중앙일보(최준호 기자)